

# 익산 고택서 만나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삶'

11월까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삼복지인 가람이어라' 운영

익산시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에서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근현대 시조문학의 선구자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무대로 하는 체험형 문화유산 프로그램 '삼복지인 가람이어라'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삼복지인 가람이어라 △가람의 발자취 △가람에 살았었다 등 3가지로 이뤄졌다.

3개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누리집(www.마수리늘배움협회.com)에서 가능하다.

이병기(1891~1968) 선생은 시조의 현대적 부흥을 이끈 시인이자 국문학자, 술·제자·난초를 삶의 세 가지 복으로 여긴 '삼복지인(三福之人)'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우재'는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초가 고택으로, 조선 후기 가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이병기 선생의 삶에 대한 철학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그의 가치관과 문학 세계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수우재를 중심으로 가람문화관, 여산동헌, 합다 돌담길 등 익산의 주요 문화유산 공간에서 진행된다.

'삼복지인 가람이어라'는 전통의 '세 가지 복(福)'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통 가양주 시음, 난초 시조 쓰기, 약밥 만들기 등을 통해 고택의 삶과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가람의 발자취'는 가람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재해석하고, 말모이 만보챌린지와 현대 시조 쓰기 등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또한 '수우재 별빛 음악회'는 전통 고택의 감성을 음악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가람에 살았었다'는 전통 건축물을 탐방하며, 가람 선생의 삶과 자연 친화적 생태 가치를 잇는 인문학 체험이다. 탕자나무 이야기, 전통 건축의 지속 가능성 등을 통해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삼복지인 가람이어라' 포스터

프로그램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마수리배움협회(063-837-008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한루원에서 한복 입기 체험을 통해 남원만의 특별한 봄 정취를 만끽했다.

## 광한루원, 전국 학생 웃음소리로 활기

초·중학생·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방문 잇따라... 한복 입기·전통 놀이 등 체험

남원시의 광한루원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들의 설렘 가득한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광한루원은 봄을 맞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초·중학생들은 물론,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몰려들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4월 들어 관내와 인근 지역 학교들이 줄지어 광한루원을 찾아 완월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오작교 아래 노니는 잉어 떼에 먹이를 주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전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도 광한루원을 방문해 한국의 미(美)에 감탄하며, 한복 입기 체험과 전통 놀이를 통해 남원만의 특별한 봄 정취를 만끽했다.

광한루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된 '광한루원 봄 페스타' 운영으로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해 체험학습과 졸업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한 학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역사체험형 콘텐츠 시범 운영

군산시는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이하 '식량영단')에서 4월 10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금·토·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역사체험형 콘텐츠(방탈출 프로그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식량영단을 활용해, 기존의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스토리와 몰입감을 갖춘 체험형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체험형 관광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식량영단의 밀서'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근대 역사 공간 속에서 다양한 퍼즐과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매시 30분 입장)로 진행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7부 '강패와 고아' (2)

###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배순옥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배순옥을 찾아야 한다. 그녀를 찾으면 동식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날 봉사활동을 하러 호암마을로 가고 있는데 붉은여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붉은여우의 전화는 숨통치기 되어 동식의 입을 꽉 틀어막았다.

경찰과 동식 관계는 천적관계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경찰 전화를 받으면 일어나는 생리현상인데 붉은여우의 전화는 그 현상이 더 심하다.

경찰서로 들어오라고 한다. 박창수의 주검에 대한 증거를 찾은 것일까. 동식은 보호관찰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고창경찰서로 방향을 잡았지만 머리는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동식은 자신이 박창수 죽음과 관련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답답했다.

지난 번 붉은여우 최수환 형사는 동식이 박창수를 죽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박창수가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분석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이에 붉은여우는 동식을 조사한 것이었다. 박창수의 사체를 부검해서 죽음의 원인을 찾아낼 것이다. 육감적으로, 붉은여우가 간을 보고 있다는 판단이 섰다.

경찰은 습관적으로 넘겨져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붉은여우는 고전적인 수법을 동식에게도 사용한 것이지만 동식이 그런 고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붉은여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동식을 부른 것은 부검결과가 나왔고 박창수 죽음의 원인이 나왔다는 것 아닐까. 의심이 없기에 부검을 할 수도 있다. 칼에 찔렸거나 둔기로 머리를 가격 당했거나 하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부검을 한 것 아닐까.

죽음의 원인이 의심이 아닌 신체 내부에 있었기에 해부를 한 것 아닐까. 동식은 열심히 머릿속으로 상상의 수사를 해가며 경찰서로 향했다.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동식은 붉은여우에게 먼저 선제 주먹을 날렸다. 동식도 넘겨졌을 것이다. 당신들이 박창수의 사체를 부검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넘겨주시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할까.

붉은여우는 질문을 듣자마자 피식 웃었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다. 동식의 전략을 알아차린 것이다. 너도 넘겨졌고 있나. 하는 표정으로 웃음을 날린 것이다. 동식도 만만한 놈이 아니다.

수사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동식은 분위기부터 얼른 캐치했다. 만약 부검결과가 동식과 뭐라도 연결되었다면 평평한 긴장감이 사무실에 감돌고 있어야 한다. 살인 용의자 동식을 곧 체포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었다. 그건 곧 동식과 박창수의 죽음과의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식은 자신감을 갖고 붉은여우에게 선 제편지를 날린 것이다.

"자네, 뭐하려고 그날 저녁에 박창수를 만난 거지?"

붉은여우는 동식의 질문을 슬쩍 비껴가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건 지난번에 말을 했을 텐데 왜 또 물어보는 거지? 동식은 눈으로 대답하며 입을 열었다.

"왜, 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 만난 거야?"

이유는 알 것 없고 얼른 대답하라는 건가. 지난 번 조사 때, 동식은 박창수가 누군가를 때려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동식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붉은여우는 동식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때려달라는 하찮은 부탁을 하려고 해가 떨어진 밤에 그것도 시골구석 산의 초미 계곡에 차를 받쳐놓고 은밀하게 만난단 말인가. 게다가 그 현장에서 동식이 떠난 뒤에 누군가 다시 박창수를 만난 일이 없었다면 그 차안에 현금 오천만원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